

자등명, 범등명

| 용타스님 |

이번 호부터 행복마을 이사장인 용타 스님의 글이 연재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의 본래 성품에 대한 무한 신뢰가 설법을 고착시키지 않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든다는 것을 밝혀줍니다(편집자 주).



나는 1980년도부터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해탈을 위하여 [동사섭]이라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 32년 동안 수련회를 개최해왔다. 이번에 미내사에서 격월간으로 글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그러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수련회를 통한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메시지를 읽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성과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했기 때문이다. 수련회는 〈…이론-실습-이론-실습…〉의 형식으로 운영된다. 글을 통해 이해한다는 것은 자연히 실습 없는 이론 학습이 되겠지만 수련장은 아니더라도 문자로 안내하는 실습을 스스로 시행해본다면 노력하는 정도만큼은 실습성과도 있으리라 본다. 글은 일련번호를 붙이면서 단상(斷想)형식으로 써볼까 한다. 한 번호의 글이 독립된 메시지가기는 하나 앞뒤 번호의 글과 함께 상당히 체계적이 될 것이다.

001. 의지처 :

한 생명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생명은 홀로는 살 수 없고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의지해야 살 수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 3개월 후에 열반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열반하실 장소인 〈쿠시나가라〉라는 마을로 가셨다.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 아난다는 스승이 돌아가신 후가 걱정이 되어, 부처님께 스승이 돌아가신 다음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부처님 대답은 간단했다.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이다.”

인생이란, 길을 걷는 것과 같다. 걸어가려면 걸어가야 할 길이 환히 보여야 한다. 환히 보여야 할 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 길이 잘 보이지 않으면 걸어가야 할 길이 환하게 보이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

장치가 등불이다. 석가모니는 바로 한 등불이셨다. 35세에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은 80세까지 45년간 세상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을 밝히신 등불 역할을 하셨다. 그 스승이 세상과 하직해야 할 상황에서 제자들은 이제 등불이 사라지는데 누구를 등불로 삼아야 하는지 걱정되고 궁급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누구를 등불로 삼아야 할까요?”라는 제자의 질문에 “상수제자 누구누구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들을 등불로 삼고 스승으로 삼아 살아가거라!” 식의 답이 예상되는 자리였다. 그런데 부처님의 답은 예상을 벗어난다. “자등명(自燈明)! 바로 자기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그 밝음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되고, 법등명(法燈明)! 바로 내가 45년간 설한 법을 등불로 삼고 그 밝음에 의지하여 살아가면 된다.”라고 답하신 것이다.

부처님께서 45년간 설법하셨으니 그 설법을 등불로 삼으면 된다는 법등명(法燈明)은 당연하게 들리지만, 스스로를, 아니 별로 지혜롭지 못한 스스로를 의지해야 할 등불로 삼는다는 자등명(自燈明)은 무언가 아닌 것 같이 여겨진다. 그러나 만일 법등명만을 이르고, 자등명을 이르지 않으셨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 것 같은가?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말씀에 집착하여, 그 말씀의 해석이 서로 다름으로 인한 치열한 논쟁이 쉽게 예상되고 그것이 법난(法難)으로 이어질 것임도 쉽게 예상된다. 나아가 법등명만을 이르셨다면 불교의 교리는 3000년 전 석가모니 설에 묶여진 채 상황과 시대에 상응하는 자유로운 가르침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자등명(自燈明)!!! 이것은 가히 불교의 숨통이었다. 3000년 역사상, 불교가 있는 곳에 불교라는 이름으로 전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은 단적으로 부처님께서 자등명(自燈明)이라는 의식 영역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다. 불교의 역사에 만들어진 불교경전은 석가모니께서 직설하신

경전 외에 그보다 100배나 많은 경전이, 경전 사이에 말씀들이 서로 상충된다고 해도 경전이라는 이름으로 존중되면서 웅성거리고 있는 것은 바로 자등명 덕택인 것이다. 상대방의 말씀이 나의 말씀과 다르다 해도 “나의 자등명 차원에서는 이리이러하지만, 당신의 자등명 차원에서는 그러그러하심을 존중합니다.” 식이 불교의 기본 입장이다. 불교가 자등명이라는 의식 영역을 더 허용하는 이유는 불교라는 문화 풍토에서는 불교교리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고득락(離苦得樂: 행복)을 위한 수단이요 방편이기 때문이다. 불교 교리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생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자등명(自燈明)! 스스로를 등불로 삼음, 곧 스스로의 지성과 이성을 중시함! 거름 말하거니와 이것은 참으로 다행스럽기 그지없다. 자등명과 법등명에 애매한 태도를 가진 불교인들을 대할 때, 나는 “365일의 삶에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함에 있어서 경전에 입각하여 하는 경우와 스스로의 이성(理性)으로 판단하여 하는 경우가 몇 대 몇이나 되는가?”를 묻곤 한다. 자등명(自燈明)을 첫 단상으로 올리는 것은 우리 <지금 여기> 독자들의 성품 자체가 바로 지혜의 보고이며, <지금 여기> 독자 자신들의 이성과 양심이 훌륭한 길잡이라는 것을 깨우쳐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002. 사색(思索)과 독서(讀書) :

인생에서 독서와 사색은 얼마나 중요할까? 대단히 중요하다 함에 반대할 이는 없을 것이다. 독서는 법등명(法燈明)적인 일이고, 사색은 자등명(自燈明)적인 일이다. 독서(讀書)!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 사람은 독서를 통해서 무한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정보를 통해 의식을 무한히 확장시킬 수 있다. 사색(思索)! 역시 중요하다. 사람은 사색을 통해서 독서 등으로 얻은 정보를 심화(深化)시키고 체화(體化) 시킨다. 독서는 구슬을 모으는 것이라면, 사색은 구슬을 깨는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구슬이다.

20세기 현자로 칭송된 시바이처님은 사색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했다. 그는 20세기의 최고 위기는 사색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 했고, ‘생각(사색)을 포기한 인과를 툭툭히 치르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필자 생각으로는 지구 온난화가 끝어올 대재난 등을 걱정하면서 시바이처님의 예언이 적중되고 있음을 본다.

사색(思索)이란, 묻고 답하는 심리과정을 말한다. 무엇을 묻고 답할 것인가? 우리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물음을 묻고 답하는 것이다.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논의하는 것을 석가모니는 희론(戲論)이라 하여 금했다. 우리 모두의 행복에 도움 되는 사색을 하지 않는 것을 시바이처님은 개탄(慨嘆)한 것이다. 행복에 도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판단은 묻는 이의 자등명의 일이다. 이어서 용타 자등명(自燈明) 차원에서 많은 물음을 묻고 답하려 한다.

003. 왜 사는가? :

여기에 내가, 우리가 살고 있다. 왜 사는가? 즉 삶의 이유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은 대학 1학년 때 치열하게 물었던 물음이다. 〈Why do I live?〉라는 영문 수 을 써서 지도교수로부터 칭찬도 받았다. 치열하게 물던 답은 아주 싱거운 듯한 답으로 이어졌고, 나는 그 답으로 충분히 만족하면서 평생 〈왜 살까?〉 식의 물음을 다시는 묻지 않았다.

그 답은 〈모른다〉였다. 그러한 결론에 이른 것은 만일 〈모른다〉는

답이 아닌, 어떤 답을 설정한다면, 어떤 답도 결코 사실 자체의 직관(直觀)이 아니고 미루어 짐작해보는 추론(推論)에 불과할 것이라는 점, 그 답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토론은 영원히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 더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의 답을 찾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고 시급한 일들이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살고 있다는 점일 뿐, 보이지 않는 배경, 보이지 않는 과거를 추적하여 그 원인이나 이유를 찾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할애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훗날 〈행복과 니르바나에 도움이 되지 않은 논의는 희론〉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모른다〉라는 대답에 만족하면서 왜 사느냐는 철학적인 주제로부터 벗어난 것이 참 다행이었다고 여기며 기뻐하곤 했다.

004. 어떻게 살 것인가? :

왜 사느냐는 답은 큰 의미도 없고 〈모른다〉 정도의 답으로 정리하더라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설문은 현재로부터 미래에 살아야 할 나의 현실이니 깊게 사색해야 하며, 구체적인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색의 결과 얻어낸 답은 〈행복하게〉였다. 어떻게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40세 되던 1980년부터 현재 내 나이 71세에 이를 때까지 32년간 크게는 6단계, 적게는 100여 단계를 업그레이드 해온 〈동사섭(同事攝)〉이라는 이름의 마음공부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것이 대학시절 던졌던 설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된 것 같다. 어떻게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다. 행복이란 무엇이며,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 동사섭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그 구체적인 답을 제시한다. 아마 이 용타단상을 통해 그 대답이 상당히 드러날 것이다.

005. 삶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일 중요한 것? 대체로 사람마다 다른 답이 나올 것이나 필자는 <삶>이라고 권장 답을 제시한다. 자신의 삶이 없다면 무한 우주는 무의미하다. 모든 것은 자신의 삶이 있고난 다음의 일이다. <삶>! 삶이 의미의 시작이요, 의미의 전부이다.

006. 프레임(Frame)

삶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우선 사람의 삶을 행복행 측면으로 관찰해 보면 불행의 극(極)에서 행복의 극에까지 걸쳐져 있다. 가장 불행한 삶으로부터 가장 행복한 삶까지 천차만별의 삶이 있을 것이고, 그 삶의 행복행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터, 삶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 마치 영사실의 영사막에 뜨는 영사물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을 묻는 것이다. 삶을 결정하는 요인은 참으로 무수할 것이요, 가장 핵심이 되는 요인을 묻더라도 사람마다 다양하게 답을 제시할 것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프레임(Frame)>을 그 핵심 요인으로 제시해 본다. 불교에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는 말이 있고, 모든 것은 마음의 투영이라고 어느 영성촌에서나 이야기할 것이다.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마음이란, 바로 그 사람의 가치관, 곧 프레임을 의미한다. 가치관이란,


신념체계, 생각, 마음의 틀, 사고방식, 세계관, 인생관 등이다. 행복, 건강과 질병, 부와 빈, 귀와 천, 모든 고통, 모든 싸움 등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가치관이요 프레임이라는 자각을 하고 있다면 그 자각 자체가 참으로 중대한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해야 할 일은 스스로가 현재 어떤 프레임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하고, 바르지 않은 프레임은 지양하고 바람직한 프레임들은 정립해 가야 한다.

거듭 말하거니와 사람은 바람직하든 하지 않든 프레임을 지닐 수밖에 없고, 지닌 프레임 대로 살게 된다. 불행해질 수 있는 프레임을 지닌 사람은 자연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터요, 행복할 수 있는 프레임을 지닌 사람은 자연히 행복할 수밖에 없다. 프레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강조가 넘치지 않는다.

007. 행복론의 기초 논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인생, 곧 삶의 목적이 무엇이나는 논의이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 삶이나 하는 질문이다. 사람이 행하는 행위의 가지 수는 참으로 무수하다. 그 무수한 행위들은 무엇을 얻고, 성취하고자 행해지느냐를 묻고 있다. 권장 답은 〈행복〉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것은 만인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했고, 석가모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고득락(離苦得樂: 고통은 벗어나려 하고 즐거움은 얻으려함)을 지향한다고 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임은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그런데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 ‘행복’ 하는데 무엇을 행복이라 할까? 건강, 사랑, 돈, 권력, 명예, 우정, 가정화목, 이런 것들이 행복일까? 이런 것들은 행복의

조건이지 행복 자체는 아니다. 그러면 행복 자체는 무엇일까? 그것은 <느낌>이다. 좋은 느낌을 행복이라 한다. 좋은 기분, 좋은 정서, 좋은 감정, good feeling 등이 행복이다. 안 좋은 느낌을 불행이라 하고 좋은 느낌을 행복이라 한다. 한 여름 무더위를 뚫고 바람이 살갓을 스치며 지나간다. 시원하고 좋은 기분이 인다. 그때 그 느낌이 그 만큼의 행복이다. 기독교의 구원이나, 불교의 해탈도 결국은 행복의 다른 이름이요, 좋은 느낌이 그 본질이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말은 인생의 목적이 결국은 좋은 느낌을 느끼며 사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면 행복의 주체는 누구일까? 이 질문을 던지면 열 명 중 아홉은 “나!”라고 대답한다. 이 답은 틀린 답은 아니지만 온전한 답은 아니다. 온전한 답은 “우리!”이다. 사람이라면 대체로 가족들이 어떤 우환 속에 있는데 자기만 행복하다 할 사람은 없다. 따라서 <인생의 목적은 우리 모두의 행복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이다.

수련장에서는 위 네 명제[<1>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2> 행복은 좋은 느낌이다. <3> 행복의 주체는 우리 모두이다. <4> 인생의 목적은 우리 모두의 행복이다]를 행복론의 기 논지라고 엮어 말하기도 한다. 느낌 여하가 그러하다고 볼 때 <느낌에 눈뜨지 못한다는 것은 인생을 모른다는 것>이라고 갈파하더라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용타 스님** | 1964년 청화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6년부터 1974년까지 고등학교 독일어교사로 교단에 섰으며, 1974년부터 1983년까지 20안거를 성만했다. 미국 삼보사 주지, 성륜문화재단 이사, 재단법인 행복마을 이사장으로 1980년도부터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해탈을 위하여 [동사섭]이라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 32년 동안 수련회를 개최해왔다. 저서로는 <마음 알기 다루기 나누기>, <10분 해탈>이 있다.